

철새란

매년 계절별로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이동하는 새를 '철새'라고 합니다. '도요·물떼새류'는 대표적인 철새로 주로 갯벌이나 해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의 툰드라지대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월동하지만 이동 중의 '중계지'로서 봄과 가을에 일본을 찾아옵니다. 무리지어 긴 거리를 단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계지에서는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먹이를 먹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대량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합니다. 철새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번식지, 월동지, 중계지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국 제적인 보존 노력이 가장 강력히 요구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후지마에갯벌에 서식하는 주요 조류

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빨논병아리
섬새
민물가마우지
알락해오리기
덤불해오리기
해오리기
검은뿔해오리기
황로
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저어새
쇠기러기
고니
흑부리도요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오리쇠오리
미국쇠오리
가창오리
참머리오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아메리카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흰죽지
맹기흰죽지
검은머리흰죽지
흰뺨오리
흰비오리
바다비오리
물수리
밭메
솔개
흰꼬리수리
참매
조롱이
새매
말뚝가리
왕새매
갯빛개구리매
개구리매
매
새호리기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눈썹부기
쇠뿔부기사촌
쇠물닭
물닭
검은머리물떼새
흰죽지꼬마물떼새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큰왕눈물떼새
검은가슴물떼새
개꿩
민당기물떼새
맹기물떼새
꼬까도요
좁도요
중당도요
흰꼬리좁도요
민물도요
붉은갯도요
붉은가슴도요
붉은어깨도요
새가락도요
목도리도요
송곳부리도요
긴부리도요
시베리아 긴부리도요
확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도요
백뺨도요
알락도요
노랑발도요
검작도요
뿔부리도요
흑꼬리도요
큰뿔부리도요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중부리도요
깎도요
큰깎도요
장다리물떼새
지느러미발도요
도둑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재갈매기
큰재갈매기
흰갈매기
갈매기
꿩이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새가락갈매기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레나루제비갈매기
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물총새
노랑할미새
백할미새
검은등할미새 등



민물도요
아래로 조금 휘어진 부리가 특징. 큰 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다. 유라시아 북부와 미국 등에서 번식하며 일본에는 나그네새 또는 겨울새로서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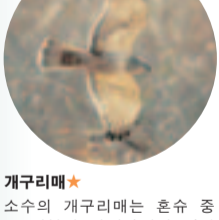
큰뿔부리도요
위로 휘어진 긴 부리가 특징. 유라시아 북부와 알래스카 등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아프리카까지 날다. 일본에는 나그네새로서 봄, 가을에 찾아온다.



개꿩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물떼새과의 새. 유라시아와 북미 북부에서 번식하며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등에서 월동하고 일본에는 나그네새 또는 겨울새로서 찾아온다.



물수리
물고기를 먹는 대형 매. 해안이나 호숫가에 살며 물위를 날다가 급강하해서 물고기를 발로 낚아챈다. 준멸종위기종.



개구리매
소수의 개구리매는 혼슈 중부 이북의 갈대밭에서 번식하고 겨울새로서 혼슈 이남에 찾아와 간척지와 습지의 갈대밭 등에 서식, 조류와 소형 포유류 등을 잡아먹는다. 멸종위기 II류.



검은머리갈매기
중국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주로 서일본의 갯벌이나 하구에서 월동하는 겨울새. 낮게 날면서 게나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멸종위기 II류.

★=희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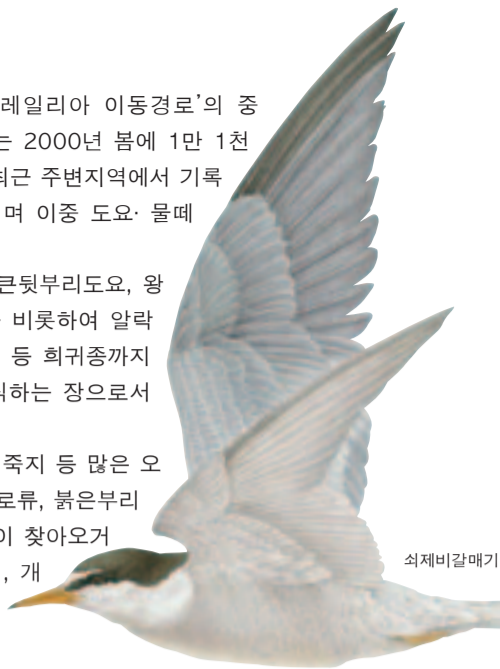
후지마에갯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들

'후지마에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이동경로'의 중계지이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찾아오며, 특히 도요·물떼새류는 2000년 봄에 1만 1천 마리가 넘게 찾는 등 일본국내 최대급 도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주변지역에서 기록된 조류는 수림성 조류 등도 등을 포함하면 172종을 헤아리며 이중 도요·물떼새류는 41종에 달합니다.

봄, 가을의 이동시기 및 월동기에는 민물도요, 좁도요, 개꿩, 큰뿔부리도요, 왕눈물떼새, 흰물떼새, 민당기물떼새, 청다리도요, 노랑발도요를 비롯하여 알락꼬리마도요, 시베리아 긴부리도요, 사할린 청다리도요, 저어새 등 희귀종까지 포함된 각종 도요·물떼새류가 많이 날아와 먹이를 찾고 휴식하는 장소로서 갯벌 주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극동러시아, 알래스카 등에서 맹기흰죽지, 흰죽지 등 많은 오리류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그밖에 대백로, 쇠백로 등의 백로류, 붉은부리갈매기, 제비갈매기 등의 갈매기류, 물수리 등의 맹금류도 많이 찾아오거나 서식하며 그중에는 중백로,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 개구리매, 매 등의 희귀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갯벌로 이어지는 소나이가와, 신카와 하류 강변에는 갈대밭이 펼쳐지며, 닛코가와 하류는 조용한 담수 수면이 보전되어 개개비 등 초원성 조류와 고방오리, 물오리쇠오리와 같은 담수성 오리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0년 3월에는 3만 1천 마리의 물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쇠제비갈매기

도요·물떼새류의 이동경로



번식지인 시베리아에서 월동지인 오스트레일리아까지는 약 1만km. 이 긴 거리를 끝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데서도 후지마에갯벌은 중요한 중계지역입니다.

갯벌 및 주변지역은 대도시의 귀중한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어 있가 되었습니다.



갈대밭·뺨 습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수역의 각종 생물

조용한 수면
오리류 서식지

방파제·호안
도요·물떼새류 휴식지

갯벌
갈각류 등 저서생물, 대형도요류의 절호의 먹이터, 주변 갯벌이 물에 잠겼을 때 도요·물떼새류의 먹이터·휴식지

도류제 주변
갯벌이 물에 잠겼을 때 물새 휴식지, 물수리의 먹이터·휴식지

범례
- 국가지정 조수보호구
- 특별보호지구(람사르협약 등록습지)
- 갯벌 범위

● 지정구분: 집단 도래지의 보호구
● 면적: 조수보호구 770ha
특별보호지구 323ha
● 존속기간: 2002년 11월 1일~2012년 10월 31일(10년간)

국가지정 조수보호구의 개요

- 국가지정 조수보호구는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 구역을 국가(환경대신)가 지정하는 것한 구역입니다.
- 구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또한 조수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구역은 특별보호지구로 지정되며 일정한 개발행위가 규제됩니다.
- 지정구분으로서 지정구분은 대규모 서식지, 집단 도래지, 집단 번식지, 희귀조수 서식지 보호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거법령: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88호)
※ 지정상황(2003년 3월 31일 현재)
국가지정 조수보호구: 56곳……49만 5천 ha
그중 특별보호지구: 44곳……11만 7천 ha

구분	조수보호구 (법 제28조)	특별보호지구 (법 제29조)
제도개요	조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 조수보호구 중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 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대상은 국가(환경대신)가 지정.	조수보호구의 구역 내에서 조수 또는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
규제개요	수렵금지 조수의 서식, 번식에 필요한 동지만들기, 먹이주기 등 시설 설치를 수락할 의무	요 허가행위 공작물의 신, 개, 증축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수목의 벌채
존속기간	20년 이내 기간은 갱신 가능	조수보호구의 존속기간 범위내

물을 정화하고 생명을 키우는 갯벌

인간이 흘러보내는 하수에는 배수에는 인이나 질소 등 무기영양염류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원이 됩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발생하여 '적조'를 일으켜가 나타나 어패류에 큰 영향을 주지만, 갯벌이나 여울에서는 썩, 바지락, 게,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이 식물플랑크톤을 열심히 먹어 물을 정화킵니다. 특히 저서생물들이 뺨에 뚫은 구멍에 바닷

속 산소가 공급되어 물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갯벌은 저서생물을 먹는 철새 등의 먹이 공급처가 되며 다양한 생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후지마에갯벌을 지키는 모임

갯벌의 생태계



큰뿔부리도요